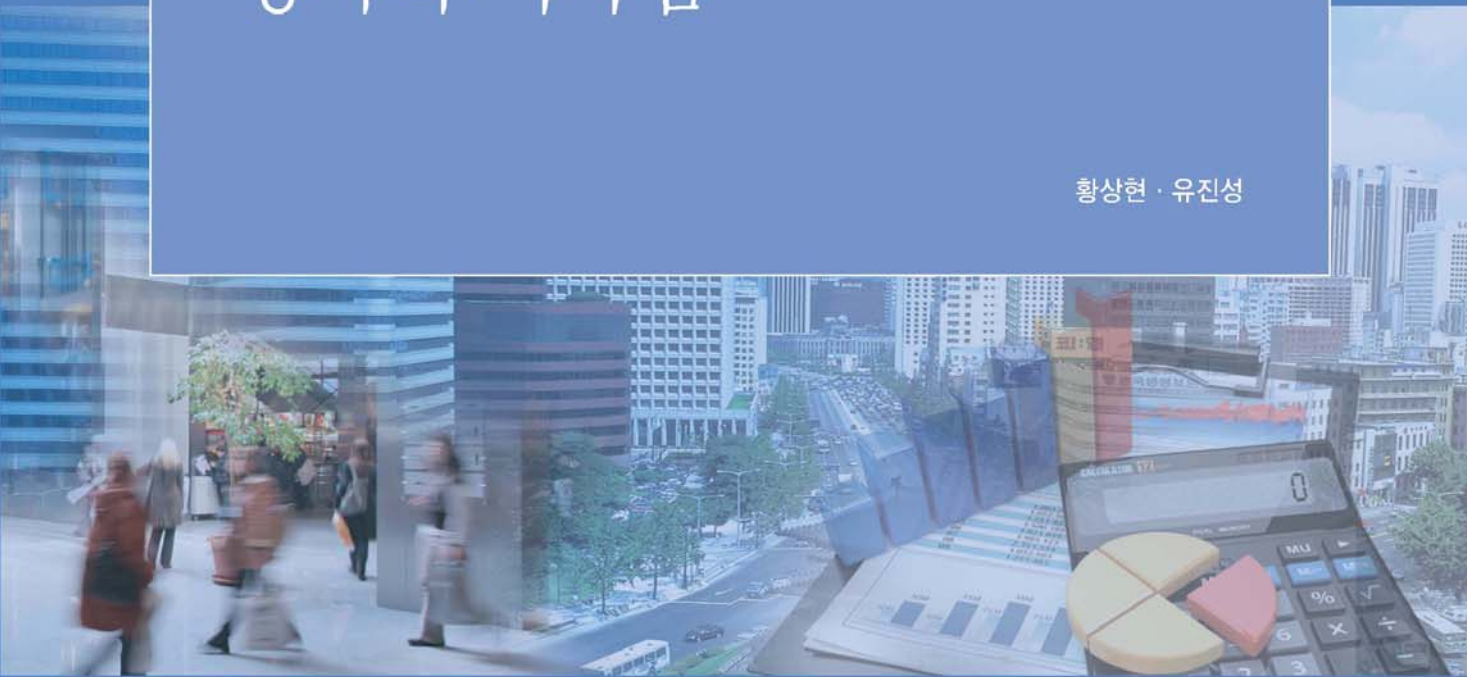


정책연구 2015-06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황상현 · 유진성



정책연구 15-1

2015. 3.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황상현·유진성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에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응용 이론, 재정학, 환경경제학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공저, 2013),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공저, 2013),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공저, 2012),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2011), “Economic Growth and Renewable Resource: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자원·환경경제연구, 2012),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공저, 규제연구, 2012) 등이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응용미시, 복지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2014),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2014),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공저, 2013),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공저, 2013),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공저, 2013),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공저, 2012),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2014, 공저) 등이 있다.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5년 4월 2일

1판1쇄 발행 | 2015년 4월 6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25-7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10472)

CONTENTS

요약	5
I. 서론	10
II.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경기상황 변화	11
1.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11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13
3. 경기상황 변화	14
III. 법인세 부담 추이	16
1.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16
2. 기업의 법인세 부담	17
IV. 법인세수 변화요인 분석	20
1. 분석 데이터	20
2. 변수선정 및 실증분석 방법	21
3. 실증분석 결과	24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5
1. 법인세율 vs.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35
2. 정책적 시사점	36
참고문헌	39

표
목
차

[표 1] 법인세 및 지방세 법인세분 법정세율 변천	12
[표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13
[표 3] 변수이름 및 변수설명	23
[표 4] 기술 통계량	24
[표 5] 법인세율의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 - 고정효과(fe)와 임의효과(re)	25
[표 6]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27
[표 7] 법인세율의 선형 회귀분석 결과 - 고정효과(fe)와 임의효과(re)	28
[표 8] 법인세율의 비선형·선형 회귀분석 결과 - 대기업, 고정효과(fe)	30
[표 9]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	31
[표 10] 법인세율의 비선형·선형 회귀분석 결과 - 중소기업, 고정효과(fe)	32
[표 11]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33
[표 12] 2007년과 2009년 기업의 법인세액 감소 배경	34
[표 13] 최저한세율 변화	38

그
림
목
차

[그림 1]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변화	13
[그림 2]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14
[그림 3]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추이	16
[그림 4]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법인세 부담 추이	17
[그림 5]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 간 상관관계	18
[그림 6]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총공급 증가와 GDP 증가	37



- ▶ 진보진영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의 감소가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을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원부족을 가져왔다는 비판
- ▶ 본 연구의 주목적은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법인세수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의 주원인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 1998~2012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의 변천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로 요약하면 법정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법인세 및 지방세 법인세분 법정세율 변천

(1) 법인세

구분	1996~1997		1998~2001	2002~2003	2004~2008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일반법인	1억 원 이하	18%	16%	15%	13%
	1억 원 초과	30%	28%	27%	25%
구분	2009		2010~2011	2012~2014	
	과세표준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일반법인	2억 원 이하	11%	10%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2%	22%	2~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2) 지방세

	1985~2000		2001~2013
	과세표준	세율	세율
법인세분	법인세액	7.5%	10%

주) 시행연도 기준

▶ 경기상황 변화

- 1998~2012년 기간 사이 실질 GDP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실질 GDP는 1998년에 681.1조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42.0조 원에 이룸.
- 같은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첫해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며 현재까지 점차 감소
- 실질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는 -5.5%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크게 하락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1999년에는 11.3%로 크게 반등
-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현재 2.3%에 이룸.

▶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명목 법인세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법인세수는 1998년 11.6조 원에서 2013년 현재 48.5조 원으로 크게 증가
- 법인세부담률(=법인세수/GDP)은 1998년에 2.2%에서 2008년에 3.9%로 최고치에 달하며 2013년 현재 3.4%로 감소

▶ 기업의 법인세 부담

- 1998~2012년 기간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1998년에 24.8억 원으로 최저치에서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다 2012년 현재 77.7%에 이르고 있음.
- 1998~2012년 기간 동안에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즉,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으로부터 얻는 법인세수는 감소할 수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실질 GDP 간에, 또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 증감률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본 연구는 법인세수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기업 데이터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상장사 데이터를 사용
-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사용
- 독립변수로는 명목 법인세율,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되는 기업의 재무지표, 경기상황을 대변하는 변수 등을 포함
- 위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고 법인세율의 비선형·선형 모형을 가정한 후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적용하였음.
 - 요약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율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식을 사용하여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법인세액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본 연구모형의 법인세율 효과가 법인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생산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기업의 생산과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법인세율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생산과 수익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하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도출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법인세액의 상승보다 기업의 생산과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원 자체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1%p(1% 포인트) 증가(감소)는 법인세액을 평균 4.9%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적인 음의 효과).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사료

- ▶ 법인세율의 선형모형을 가정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비선형을 가정한 모형과 큰 차이는 없으며 명목법인세율은 법인세액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모델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1%p 증가는 법인세액을 평균 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경우의 4.9%와 큰 차이는 없음.
-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법인세율 1%p 상승은 법인세액을 평균 5.0~5.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대기업의 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액의 변화에도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서도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 비선형 모형에서는 비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선형모형을 가정한 경우 법인세율 1%p 증가는 법인세수를 평균 2.9% 감소(대기업의 경우보다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
- ▶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법인세액의 변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2007년과 2009년 기업의 법인세액을 비교하기로 함.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법인세액 로그값의 평균값은 2.772에서 2.739로 변화하여 기업의 법인세액은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시기에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27.5%에서 24.2%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 일각에서는 최고법인세율의 인하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주장이 대두
 - 분석결과 동 시기의 법인세액 감소는 법인세율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동 기간의 법인세율 감소는 오히려 법인세액을 약 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률의 감소가 법인세액을 약 17.5% 감소시켜 동 기간의 법인세액 감소를 주

도한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5%에서 0.7%로 급감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법인세수의 감소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최근의 법인세수 인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결과로 사료됨.

▶ 정책적 시사점

- 위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 감소에 있기 보다는 경기부진에 있음.
- 법인세율 인하, 그 자체는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단기적인 상황에만 몰두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여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 기반 확대 →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는 확대될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최근에는 현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적용 시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비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향후 개방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재정기반 확대가 요구됨.
 - 국제적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궁극적으로 법인세제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I. 서론

- ▶ 진보진영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의 감소가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을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원부족을 가져왔다는 비판
- ▶ 실제로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율 감소에 있지 않으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크게 기인할 수 있음.
 - 법인세율 감소로 오히려 법인세수는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안정, 내수 감소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상황의 악화로 법인세수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법인세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주목적은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법인세수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임.
 -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의 주원인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경기상황 변화

1.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 ▶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1998~2003년) 기간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였지만, 세율은 두 차례 인하되었음.
 - 1998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은 1억 원으로 유지되었으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정부 첫해인 1998년에 종전 18%·30%에서 16%·28%로 2%p(2% 포인트) 인하된 후 2002년에 15%·27%로 다시 1%p 인하되었음.
- ▶ 노무현 정부(2003~2008년) 기간에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율은 한 차례 인하되었음.
 - 2004년부터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2%p 인하되어 2004~2008년 기간 동안 13%·25%로 유지되었으며 현재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
- ▶ 이명박 정부(2008~2013년) 기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은 순차적으로 인하될 계획이었으나,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확보 등을 명분으로 최고세율은 2010~2011년 기간 인하 유보된 후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음.
 - 2008.12.26. 세법개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은 2009년부터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종전 13%·25%에서 2009년에 11%·22%로 인하하고 2010년부터는 10%·20%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었음.
 - 2009.12.31. 세법개정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여 2010~2011년에는 종전과 같이 22%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20%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었음.
 - 2011.12.31. 세법개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은 2012년부터 종전 2억 원에서 2억 원, 200억 원으로 구분되어 중간구간이 신설되었고, 중간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로 추가 인하되었지만 최고세율은 종전 22%로 유지되어 현재

까지 시행

▶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지방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부가세로서 별다른 변화 없이 한 차례 세율이 인상되었음.

- 2000년까지 7.5%로 유지해 왔던 세율이 2001년부터 2.5%p 인상되어 2001~2013년 기간 10%로 유지되었음.

[표 1] 법인세 및 지방세 법인세분 법정세율 변천

(1) 법인세

구분	1996~1997		1998~2001	2002~2003	2004~2008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일반법인	1억 원 이하	18%	16%	15%	13%
	1억 원 초과	30%	28%	27%	25%
구분	2009		2010~2011	2012~2014	
	과세표준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일반법인	2억 원 이하	11%	10%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2%	22%	2~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2)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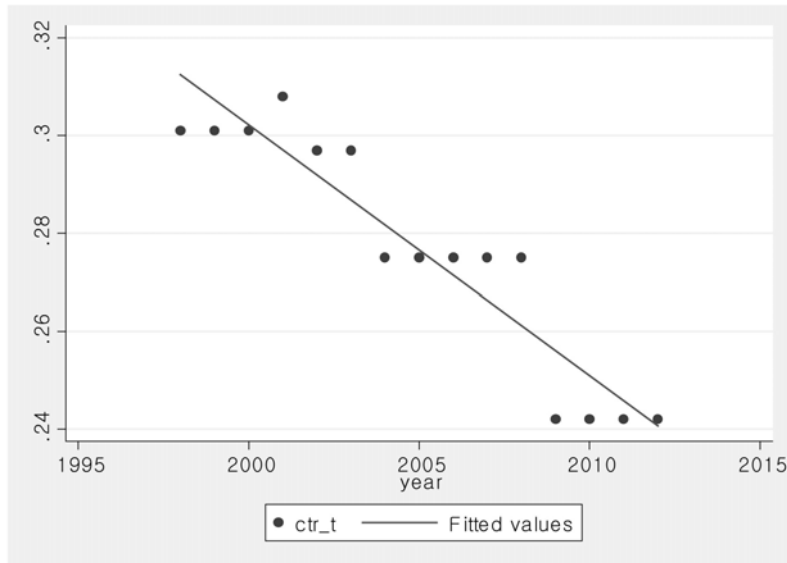
	1985~2000		2001~2013
	과세표준	세율	세율
법인세분	법인세액	7.5%	10%

주) 시행연도 기준

▶ 1998~2012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의 변천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로 요약하면 법정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30.1%로 시작하여 2001년에 30.8%로 한 차례 상승한 후 2012년 현재 24.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그림 1]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변화



주) ctr_t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 ▶ 일부 진보진영 정치권에서는 “서민증세 반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재원 마련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등을 <표 2>와 같이 제시
 -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법인세율 인상, 그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으로 간접적으로 법인세율을 추가 인상

[표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발의자	내용
박원석(정, '12.7.2) 김재연(통, '14.10.17)	과표 최고구간 신설(1,000억 원), 세율 30%로 인상
이낙연(민, '12.9.10)	과표 최고구간 500억 원으로 조정, 세율 25%로 인상
이인영(민, '13.11.20)	적정 사내유보소득 초과금액 과세, 세율 15%
최재성(민, '14.8.14)	직전 회계연도 2년간 사내유보액 증가율과 배당액 증가율 및 임금인상율을 비교하여 사내유보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율 탄력적 인상(최고 25%)
박원석(정, '14.10.6)	사내유보소득 운용수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10% 추가 과세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4.11)

3. 경기상황 변화

▶ 1998~2012년 기간 사이 실질 GDP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 실질 GDP는 1998년에 681.1조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42.0조 원에 이
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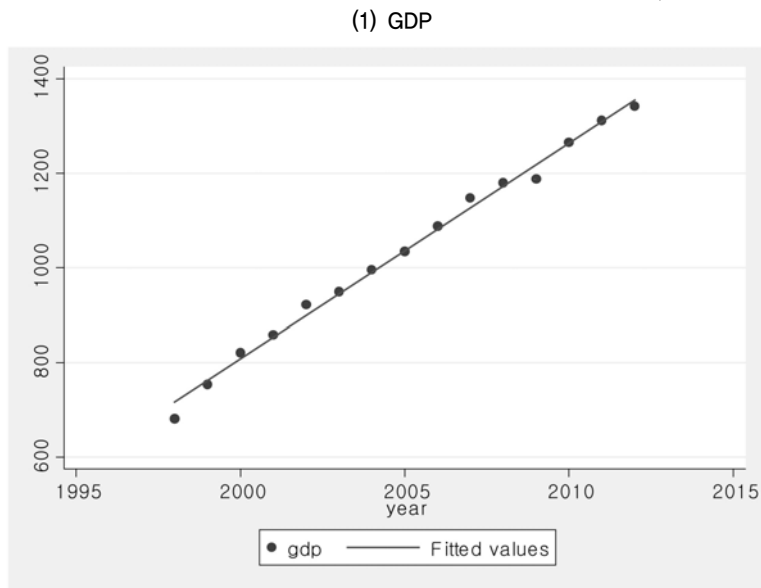
▶ 같은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첫해를 제외하면 모
두 양(+)¹⁾의 값을 나타내며 현재까지 점차 감소해 왔음.

- 실질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는 -5.5%로 음(-)의 값을 나타내
며 크게 하락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1999년에는 11.3%로 크게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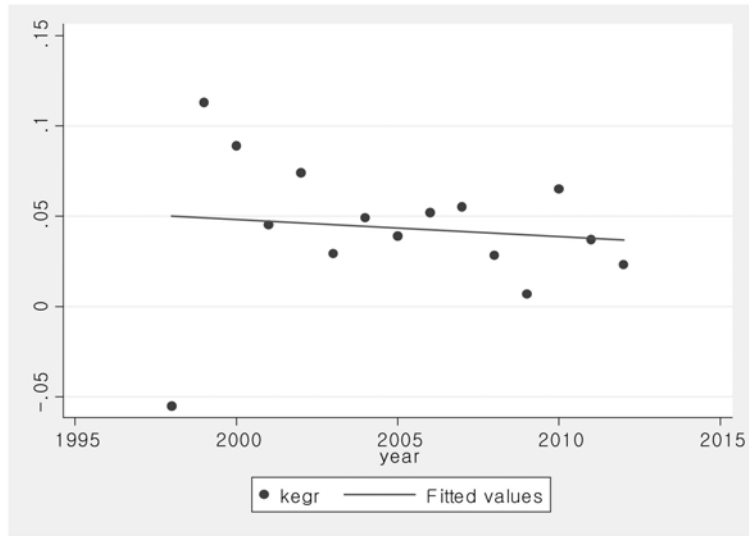
-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현재 2.3%에 이룸.

[그림 2]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조 원)



(2) 경제성장률



주) gdp : 실질 GDP, kegr : 실질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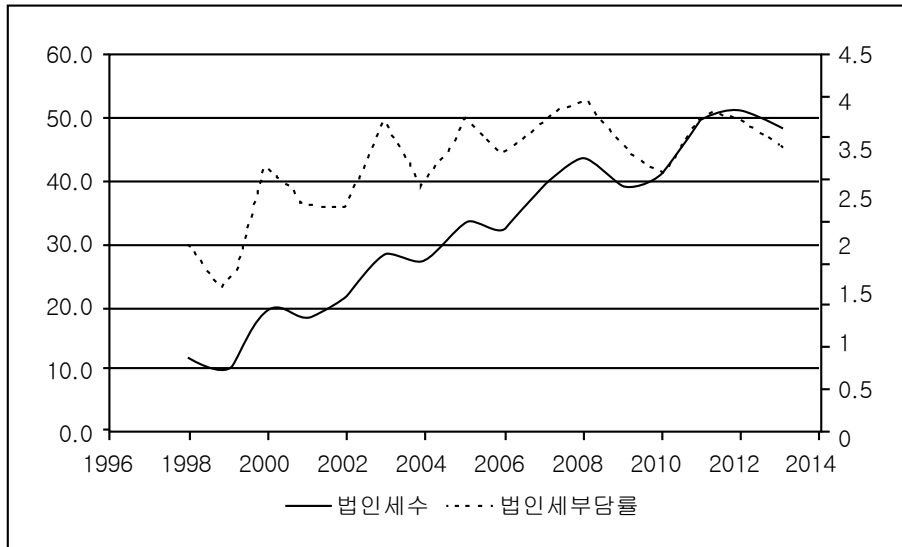


1.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명목 법인세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법인세수는 1998년 11.6조 원에서 2013년 현재 48.5조 원으로 크게 증가
-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부담률(=법인세수/GDP)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들어 완만한 추세
 - 법인세부담률은 1998년에 2.2%에서 2008년에 3.9%로 최고치에 달하며 2013년 현재 3.4%로 감소

[그림 3]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추이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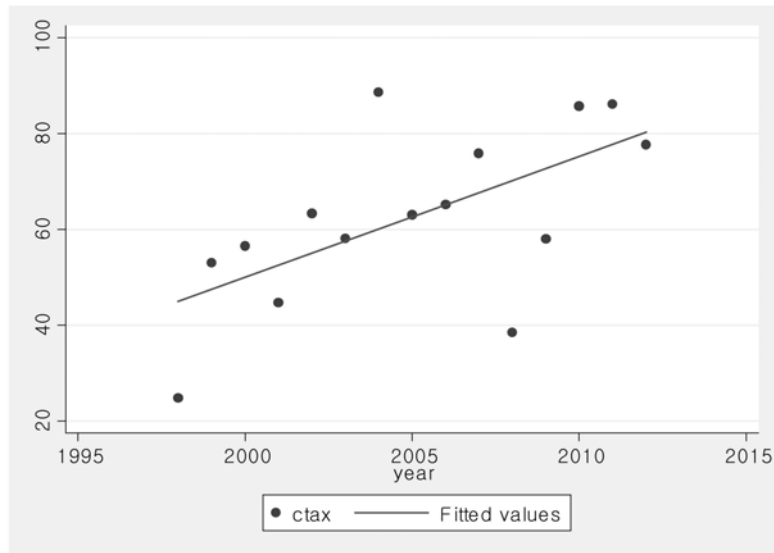
주) 지방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 기업의 법인세 부담

- ▶ 1998~2012년 기간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1998년에 24.8억 원으로 최저치에서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다 2012년 현재 77.7%에 이르고 있음.

[그림 4]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법인세 부담 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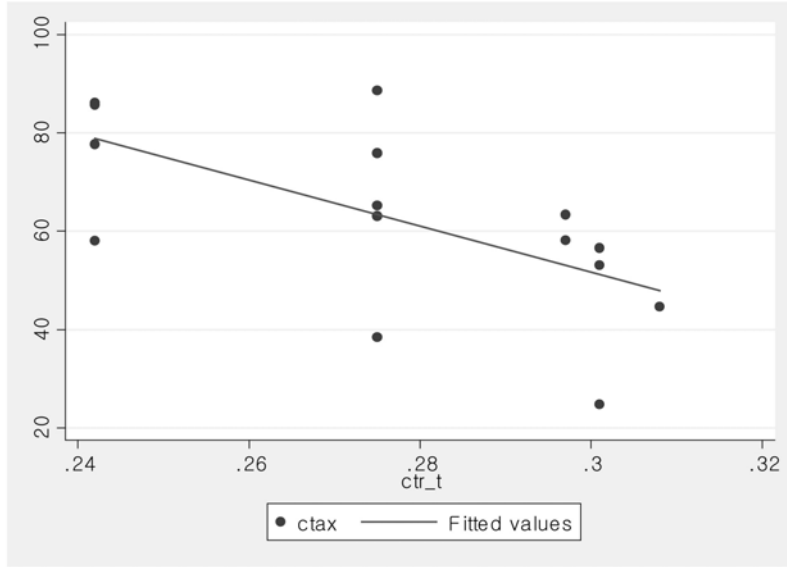
주) ctax : 비금융 상장 기업의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

- ▶ 1998~2012년 기간 동안에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즉,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으로부터 얻는 법인세수는 감소할 수 있음.
- ▶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실질 GDP 간에, 또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 증감률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즉,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기업으로부터 얻는 법인세수는 증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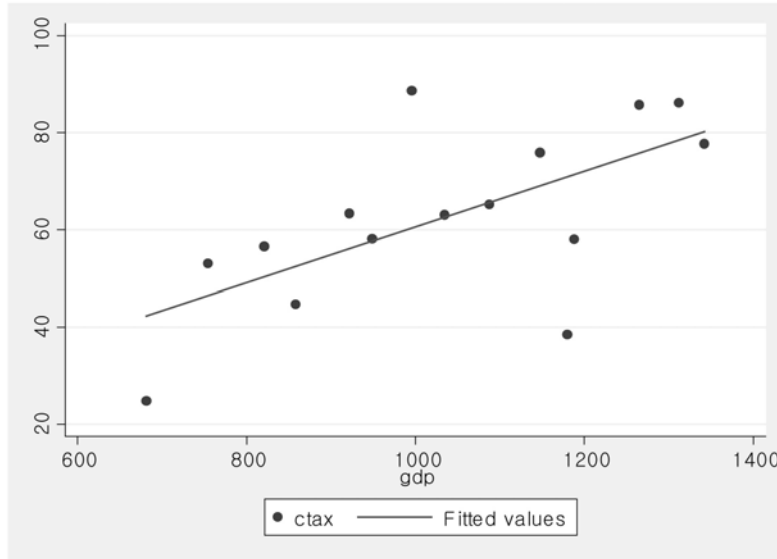
[그림 5]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 간 상관관계

(단위 : 억 원 또는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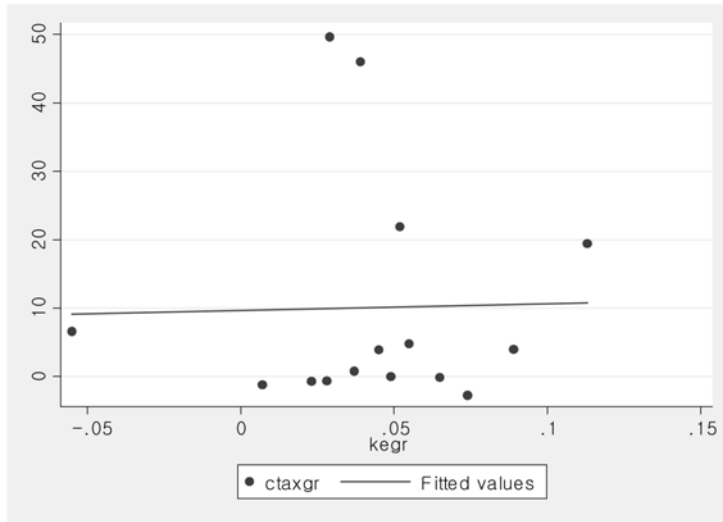
(1)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율



(2-1) 법인세 부담과 GDP



(2-2) 법인세 부담 증감률과 경제성장률



주) ctax : 비금융 상장기업의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 ctr_t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gdp : 실질 GDP, kegr : 실질 경제성장률



IV. 법인세수 변화요인 분석

- ▶ 본 연구는 법인세수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본 연구의 관심사항은 최근의 법인세수 변화 원인을 찾는 것으로서 법인세율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혹은 기타 통제변수의 변화가 법인세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특히 법인세율 변화 vs. 경기상황 변화가 법인세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통제 변수들의 효과를 실증분석
 - 이하에서는 법인세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1. 분석 데이터

- ▶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상장사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 기업 데이터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상장사 데이터를 사용
 - 산업분류코드에서 금융, 보험, 증권업을 제외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1998~2012년) 동안에 적어도 5년 연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 기업의 규모에 따른 법인세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데이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

2. 변수선정 및 실증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연도별로 연계하여 명목법인세율이 기업의 법인세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명목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등으로 구성된 모형을 고려하여 명목법인세율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래퍼커브를 도출¹⁾

$$\text{법인세수}_{it} = \alpha + \beta * X_{it} + \gamma * \text{법인세율}_t + \delta * \text{경기상황}_t + \epsilon_{it}$$

(X_{it} 는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통제변수, i =개별 국가, t =연도)

- 본 연구에서는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명목 법인세율이 기업의 납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시데이터를 이용한 법인세수 연구와는 차별화
-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사용
 - 종속변수인 법인세액은 각 기업의 회계자료 가운데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을 사용
 - 법인세 비용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명목 법인세 비용을 실질 법인세 비용으로 변환하여 사용
 - 실증분석에서는 각 기업별 법인세액 규모를 반영하는 증가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실질 법인세 비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 독립변수로는 명목 법인세율,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되는 기업의 재무지표, 경기상황을 대변하는 변수 등을 포함.
 - 본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명목 법인세율 인상논란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 변수로서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
 - ◇ 명목 법인세율은 신현대 · 이정기 · 유성용(2006)을 참고하여 법정 최고세율을 사용
 - ◇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명목 법인세율은 법정 최고세율과 지방세를 합한 세율임.
 - ◇ 법인세율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모형을 적용
 - * 하나는 래퍼커브를 고려하여 법인세율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차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는 비선형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는 선형모형인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1) 오수정(2013)

- 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한 재무자료 변수는 소동섭·심재우(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동 변수를 사용²⁾
 - ◇ 자본집약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 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요컨대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자본집약도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며 유형자산과 총자산은 장부가치로 측정
 - ◇ 연구개발 집약도: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측면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도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감세수단으로 작용.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 연구개발 집약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
 - ◇ 영업현금흐름: 기업이 생산·영업·투자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현금 흐름이 충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원자재 조달, 광고비 지출, 원리금 상환, 임금 및 배당금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기업 내 자금흐름이 세부담과 연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통제변수로 선정
 - ◇ 부채비율: 세법에 따라 부채로 인한 대가인 지급이자 손금 산입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
 - ◇ 이익증가율: 법인세율이 동일할 경우 이익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될 것임. 이익증가율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경영성과인 영업이익의 증가율로 측정
- 기업의 조세납부액은 해당 연도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액에 영향을 주는 거시변수로 오수정(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성장률, 실업률, 무역개방도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 ◇ 무역개방도의 경우 GDP 대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을 계산하여 사용

2) 이하의 재무자료 변수에 대한 설명은 소동섭·심재우(2012)의 자료변수 설명을 요약 및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표 3] 변수이름 및 변수설명

변수 이름	변수 설명
법인세액 (Ictax)	재무제표 상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 명목변수를 실질변수로 변환하고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법인세율 (crt_t, crt_t2)	명목법인세율(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모두 고려
자본집약도 (CAP)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총자산)
연구개발 집약도 (RND)	(연구개발비)/(매출액)
영업현금흐름 (CFO)	(영업현금흐름)/(총자산)
부채비율 (LEV)	(부채총계)/(자기자본)
이익증가율 (INCO)	(당기영업이익 - 전년도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
경제성장률 (kegr)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
실업률 (ur)	우리나라 연간 실업률
개방도 (open)	(무역액=수출액+수입액)/(GDP)

▶ 위에서 설명한 변수들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상정하여 실증 분석을 시행

-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법인세액}_{it} = & \alpha + \beta_1 * \text{법인세율}_t + \beta_2 * \text{법인세율}_t^2 + \gamma_1 * \text{자본집약도}_{it} \\
 & + \gamma_2 * \text{연구개발집약도}_{it} + \gamma_3 * \text{영업현금흐름}_{it} + \gamma_4 * \text{부채비율}_{it} \\
 & + \gamma_5 * \text{이익증가율}_{it} + \delta_1 * \text{개방도}_t + \delta_2 * \text{경제성장률}_t \\
 & + \delta_3 * \text{실업률}_t + \epsilon_{it}
 \end{aligned} \tag{1}$$

$$\begin{aligned}
 \text{법인세액}_{it} = & \alpha + \beta_1 * \text{법인세율}_t + \gamma_1 * \text{자본집약도}_{it} \\
 & + \gamma_2 * \text{연구개발집약도}_{it} + \gamma_3 * \text{영업현금흐름}_{it} + \gamma_4 * \text{부채비율}_{it} \\
 & + \gamma_5 * \text{이익증가율}_{it} + \delta_1 * \text{개방도}_t + \delta_2 * \text{경제성장률}_t \\
 & + \delta_3 * \text{실업률}_t + \epsilon_{it}
 \end{aligned} \tag{2}$$

- (1)식(비선형 모형)과 (2)식(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임의 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후 하우스만 테스트로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가운데 적절한 모형을 선택

3. 실증분석 결과

- ▶ 연구모형에 사용된 각종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 4] 기술 통계량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ctax	18,752	2.460	2.004	-11,267	10,358
ctr_t	18,752	0.277	0.024	0.242	0.308
CAP	18,752	0.111	0.119	0.000	0.927
RND	18,751	0.005	0.037	-0.478	2.767
CFO	18,752	0.067	0.122	-3.338	1.467
INCO	18,752	0.257	51.3	-3,850.7	4,273.5
LEV	18,752	1.283	2.820	0.001	89.025
open	18,752	0.666	0.127	0.517	0.898
kegr	18,752	0.045	0.036	-0.055	0.113
ur	18,752	0.040	0.011	0.032	0.070

- ▶ 법인세율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1)의 식을 사용하여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법인세율의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 - 고정효과(fe)와 임의효과(re)

VARIABLES	(1)-1	(1)-2	(1)-3	(1)-1	(1)-2	(1)-3
	lctax_fe	lctax_fe	lctax_fe	lctax_re	lctax_re	lctax_re
ctr_t	110.1*** (11.60)	99.34*** (11.40)	36.20*** (12.03)	113.0*** (11.54)	103.5*** (11.36)	39.69*** (12.03)
ctr_t2	-220.1*** (21.30)	-199.6*** (20.93)	-74.11*** (22.05)	-225.6*** (21.20)	-208.1*** (20.87)	-81.49*** (22.03)
CAP		-1.705*** (0.159)	-1.574*** (0.156)		-1.016*** (0.143)	-0.939*** (0.141)
RND		-2.130*** (0.306)	-1.656*** (0.302)		-2.383*** (0.291)	-1.945*** (0.288)
CFO		1.657*** (0.0859)	1.787*** (0.0847)		1.699*** (0.0844)	1.815*** (0.0832)
INCO		0.000280 (0.000181)	0.000259 (0.000178)		0.000250 (0.000180)	0.000233 (0.000177)
LEV		-0.0331*** (0.00370)	-0.0259*** (0.00364)		-0.0324*** (0.00360)	-0.0255*** (0.00355)
open			0.638*** (0.143)			0.616*** (0.143)
kegr			3.66*** (0.260)			3.58*** (0.260)
ur			-17.8*** (1.05)			-17.7*** (1.05)
Constant	-11.04*** (1.569)	-9.501*** (1.542)	-1.626 (1.676)	-11.65*** (1.562)	-10.29*** (1.538)	-2.307 (1.676)
Observations	18,752	18,751	18,751	18,752	18,751	18,751
R-squared	0.038	0.074	0.107	0.0381	0.0730	0.1065
Number of id_num	2,116	2,116	2,116	2,116	2,116	2,116

주)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 회귀분석결과 모든 모형설정에서 명목법인세율의 증가는 법인세액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모두에서 명목 법인세율은 법인세액에 대해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비선형모형에서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구절에서 설명).

- 이는 본 연구모형의 법인세율 효과가 법인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생산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기업의 생산과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법인세율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생산과 수익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하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도출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법인세액의 상승보다 기업의 생산과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원 자체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됨.
-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으로 가정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가 계산이 필요
- 법인세율의 제곱항은 미분하고 미분 후 남는 법인세율의 변수값에는 분석기간 동안의 법인세율 평균값을 대입([표 4] 기술통계량 참조)하여 이차함수 형태의 법인세율 모형에서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
 - 고정효과 모델을 기준으로 법인세율만 고려할 경우 법인세율 1%p 증가는 평균적으로 법인세액을 11.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에 기업 통제변수를 추가할 경우 법인세율 1%p 증가는 평균적으로 법인세액을 11.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모형에서는 법인세율 1%p 증가(감소)는 평균적으로 법인세액을 4.9%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적인 음의 효과).
 -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업의 생산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법인세원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법인세액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법인세액은 경기상황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액은 평균적으로 3.7% 증가하는 한편,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액은 평균적으로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사료

[표 6]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VARIABLES	(1)-1 lctax_fe	(1)-2 lctax_fe	(1)-3 lctax_fe	(1)-1 lctax_re	(1)-2 lctax_re	(1)-3 lctax_re
ctr_t+ctr_t2	-11.8	-11.2	-4.9	-12.0	-11.8	-5.5

- 한편 그 밖의 기업 통제변수의 효과는 송동섭 · 심재우(2012)에서 예상한 부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집약도(CAP), 연구개발집약도(RND)는 법인세액에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영업현금흐름(CFO)은 법인세액에 유의적인 양의 부호를, 부채비율(LEV)은 유의적인 음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영업이익증가율(INCO)은 비유의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거시변수 및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모두 매우 유의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개방도(open), 즉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늘수록 기업의 법인세액은 증가하며, 당기에 경제성장률(kegr)이 높거나 실업률(ur)이 낮으면 법인세액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이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1)-3의 모형을 하우스만 테스트로 검증한 결과 법인세율의 비선형성을 사용하는 모형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Hausman Test: 고정효과 vs 임의효과 >

$$\begin{aligned}
 \text{chi2} &= (b-B)'[(V_b-V_B)^{-1}](b-B) \\
 &= 130.61 \\
 \text{Prob} > \text{chi2} &= 0.0000 \\
 &\rightarrow \text{고정효과 선택}
 \end{aligned}$$

- ▶ 법인세율의 선형모형을 가정한 (2)의 식을 사용하여 법인세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표 7] 법인세율의 선형 회귀분석 결과 - 고정효과(fe)와 임의효과(re)

VARIABLES	(2)-1	(2)-2	(2)-3	(2)-1	(2)-2	(2)-3
	lctax_fe	lctax_fe	lctax_fe	lctax_re	lctax_re	lctax_re
ctr_t	-9.612*** (0.410)	-9.222*** (0.412)	-4.159*** (0.787)	-9.844*** (0.406)	-9.770*** (0.406)	-4.699*** (0.787)
CAP		-1.771*** (0.159)	-1.589*** (0.156)		-1.066*** (0.143)	-0.952*** (0.141)
RND		-2.138*** (0.307)	-1.659*** (0.302)		-2.397*** (0.292)	-1.950*** (0.288)
CFO		1.662*** (0.0861)	1.791*** (0.0847)		1.708*** (0.0846)	1.821*** (0.0832)
INCO		0.000255 (0.000181)	0.000252 (0.000178)		0.000224 (0.000181)	0.000225 (0.000177)
LEV		-0.0343*** (0.00370)	-0.0259*** (0.00364)		-0.0336*** (0.00361)	-0.0255*** (0.00356)
open			0.576*** (0.141)			0.547*** (0.141)
kegr			3.60*** (0.259)			3.51*** (0.259)
ur			-19.0*** (0.987)			-19.1*** (0.983)
Constant	5.123*** (0.114)	5.157*** (0.112)	3.920*** (0.296)	4.926*** (0.118)	4.993*** (0.116)	3.792*** (0.298)
Observations	18,752	18,751	18,751	18,752	18,751	18,751
R-squared	0.032	0.069	0.107	0.0320	0.0678	0.1059
Number of id_num	2,116	2,116	2,116	2,116	2,116	2,116

주)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 법인세율의 선형모형을 가정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비선형을 가정한 모형과 큰 차이는 없으며 명목법인세율은 법인세액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모델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1%p 증가는 법인세액을 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경우의 4.9%와 큰 차이는 없음.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련하여서도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액은 3.6% 증가하는 한편,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액은 19%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의 결과도 앞의 비선형모형과 같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2)-3 모형의 하우스만 테스트를 사용한 검증 결과 법인세율의 선형성을 가정하는 모형에서도 고정효과 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Hausman Test: 고정효과 vs 임의효과〉

$$\begin{aligned}
 \text{chi2} &= (b-B)'[(V_b-V_B)^{-1}](b-B) \\
 &= 351.24 \\
 \text{Prob} > \text{chi2} &= 0.0000 \\
 &\rightarrow \text{고정효과 선택}
 \end{aligned}$$

-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이후의 모형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함.
-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비교·검토할 수 있음.
-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법인세율 1%p 상승은 법인세액을 5.0~5.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이전의 결과에서는 법인세율 1%p 상승이 4.2~4.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법인세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대기업의 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액의 변화에도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방도, 경제변동성, 실업률 등도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으로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법인세율의 비선형·선형 회귀분석 결과 - 대기업, 고정효과(fe)

VARIABLES	(1)-1 lctax	(1)-2 lctax	(1)-3 lctax	(2)-1 lctax	(2)-2 lctax	(2)-3 lctax
ctr_t	128.7*** (13.85)	116.7*** (13.57)	60.62*** (14.49)	-9.291*** (0.478)	-9.302*** (0.481)	-4.999*** (0.932)
ctr_t2	-254.0*** (25.47)	-231.9*** (24.97)	-120.8*** (26.63)			
CAP		-1.441*** (0.192)	-1.375*** (0.189)		-1.495*** (0.192)	-1.392*** (0.189)
RND		-4.528*** (0.545)	-4.120*** (0.537)		-4.605*** (0.547)	-4.154*** (0.537)
CFO		2.090*** (0.127)	2.217*** (0.125)		2.095*** (0.127)	2.220*** (0.125)
INCO		0.000597** (0.000256)	0.000553** (0.000252)		0.000566** (0.000257)	0.000542** (0.000252)
LEV		-0.0281*** (0.00423)	-0.0237*** (0.00417)		-0.0307*** (0.00424)	-0.0243*** (0.00417)
open			0.568*** (0.168)			0.475*** (0.167)
kegr			3.67*** (0.322)			3.56*** (0.322)
ur			-14.7*** (1.30)			-16.9*** (1.20)
Constant	-12.74*** (1.871)	-11.03*** (1.834)	-4.073** (2.013)	5.873*** (0.132)	5.956*** (0.129)	4.922*** (0.349)
Observations	10,771	10,770	10,770	10,771	10,770	10,770
R-squared	0.047	0.089	0.119	0.037	0.081	0.117
Number of id_num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주)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표 9]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

(단위: %)

VARIABLES	(1)-1 lctax	(1)-2 lctax	(1)-3 lctax	(2)-1 lctax	(2)-2 lctax	(2)-3 lctax
ctr_t+ctr_t2	-11.1	-10.9	-5.9	-9.3	9.3	-5.0

-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서도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비선형 모형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비유의적인 음의 관계).
- 다만 선형모형을 가정하는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액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인세율 1%p 증가는 법인세액을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경우보다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액은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의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법인세율의 비선형·선형 회귀분석 결과 - 중소기업, 고정효과(fe)

VARIABLES	(1)-1 lctax	(1)-2 lctax	(1)-3 lctax	(2)-1 lctax	(2)-2 lctax	(2)-3 lctax
ctr_t	83.41*** (20.20)	73.14*** (19.86)	5.755 (20.73)	-10.18*** (0.739)	-9.443*** (0.739)	-2.919** (1.382)
ctr_t2	-171.6*** (37.00)	-151.5*** (36.40)	-15.86 (37.81)			
CAP		-2.218*** (0.275)	-2.000*** (0.270)		-2.293*** (0.274)	-2.005*** (0.269)
RND		-1.240*** (0.395)	-0.747* (0.391)		-1.232*** (0.396)	-0.747* (0.391)
CFO		1.381*** (0.121)	1.528*** (0.119)		1.387*** (0.122)	1.529*** (0.119)
INCO		1.91e-05 (0.000262)	1.89e-05 (0.000257)		1.63e-06 (0.000263)	1.71e-05 (0.000257)
LEV		-0.0407*** (0.00686)	-0.0287*** (0.00676)		-0.0402*** (0.00687)	-0.0286*** (0.00676)
open			0.847*** (0.253)			0.832*** (0.250)
kegr			3.69*** (0.427)			3.68*** (0.427)
ur			-21.4*** (1.74)			-21.6*** (1.66)
Constant	-8.532*** (2.739)	-7.053*** (2.694)	1.206 (2.899)	4.130*** (0.207)	4.122*** (0.204)	2.402*** (0.521)
Observations	7,947	7,947	7,947	7,947	7,947	7,947
R-squared	0.030	0.066	0.104	0.027	0.064	0.104
Number of id_num	1,082	1,082	1,082	1,082	1,082	1,082

주)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표 11]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단위: %)

VARIABLES	(1)-1 lctax	(1)-2 lctax	(1)-3 lctax	(2)-1 lctax	(2)-2 lctax	(2)-3 lctax
ctr_t+ctr_t2	-12.5	-11.6	-3.1	-10.2	-9.4	-2.9

▶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법인세액의 변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2007년과 2009년 기업의 법인세액을 비교하기로 함.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법인세액 로그값의 평균값은 2,772에서 2,739로 변화하여 기업의 법인세액은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시기에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27.5%에서 24.2%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 법인세율 인하와 법인세수 감소라는 표면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최고법인세율의 인하 때문에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함.
- 분석결과 동 시기의 법인세액 감소는 법인세율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동 기간의 법인세율 감소는 오히려 법인세액을 약 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률의 감소가 법인세액을 약 17.5% 감소시켜 동 기간의 법인세액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사료됨.
 - * 동 기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5%에서 0.7%로 급감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법인세수의 감소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최근의 법인세수 인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결과로 사료됨.

[표 12] 2007년과 2009년 기업의 법인세액 감소 배경

변수	회귀계수	2007년	2009년	변화분	분해
lctax		2,7722	2,7390	-0.0332	-0.0332
ctr_t	36,1994	0,2750	0,2420	-0.0330	0,0697 (-1,1946 + 1,2643)
ctr_t2	-74,1058	0,0756	0,0586	-0.0171	
CAP	-1,5741	0,1064	0,0944	-0.0121	0,0190
RND	-1,6559	0,0054	0,0060	0,0006	-0.0010
CFO	1,7866	0,0618	0,0769	0,0151	0,0269
INCO	0,0003	-0,1692	0,3637	0,5329	0,0001
LEV	-0,0259	1,0472	1,0256	-0.0217	0,0006
open	0,6384	0,6487	0,7613	0,1125	0,0718
kegr	3,6558	0,0550	0,0070	-0.0480	-0.1755
ur	-17,8147	0,0323	0,0364	0,0041	-0.0732
_cons	-1,6258	1,0000	1,0000	0,0000	0,0000
				explained	-0.0615
				unexplained	0,0282



1. 법인세율 vs.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 ▶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수의 변화의 원인을 검토하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란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법인세액의 변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 최근의 이슈가 명목 법인세율의 인상에 대한 논란인 만큼 법인세율로는 명목최고법인세율을 사용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재무제표 변수, 그리고 경기변동을 대변하는 거시경제 변수를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수행
 -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상장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1998년~2012년)의 기간 동안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인세수의 변화요인을 분석
- ▶ 분석결과 법인세율은 법인세액에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법인세율 1%p 감소는 기업의 법인세액을 평균적으로 4.2%~4.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결국 법인세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면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액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p 감소는 법인세액을 5.0%~5.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선형모형을 가정하는 경우 2.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에서는 법인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악화시키고 생산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법인세액을 더욱 낮추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의 감소는 법인세율의 인하라기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되었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기업평균 법인세액 감소의 원인을 분석

-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의 인하는 오히려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성장률 5.5%에서 0.7%하락)는 동기간 법인세수를 1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의 감소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아니라 대부분이 경제상황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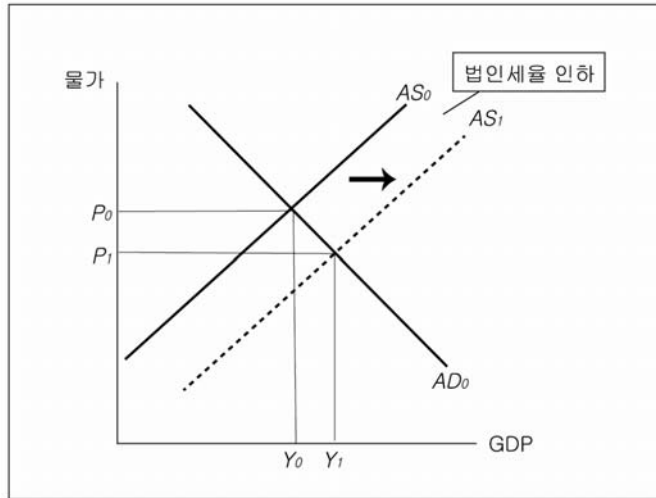
2. 정책적 시사점

▶ 위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 감소에 있기 보다는 경기부진에 있음.

▶ 법인세율 인하, 그 자체는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그림 6]과 같이 법인세율이 인하할 경우 기업들은 더 높은 가처분소득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며 생산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공급이 증가($AS_0 \rightarrow AS_1$)하여 GDP가 증가($Y_0 \rightarrow Y_1$)

[그림 6]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총공급 증가와 GDP 증가



- 국내외 문헌들에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
 - OECD(2008)에 따르면 명목 법인세율이 35%에서 30%로 5%p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 대비 투자 비율(I/K)은 약 1.9%p 증가하며, Djankov et al.(2008)에 의하면 실효 법인세율이 10%p 인하할 경우 GDP 대비 투자 비율(I/Y)은 약 2.2%p 증가
 - Lee & Gordon(2005)은 명목 법인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는 약 1.1%p 증가되며, Djankov et al.(2008)은 실효 법인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 실질 성장률은 약 1%p 증가된다는 결과를 제시
- ▶ 단기적인 상황에만 몰두하여 자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여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는 확대될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최근에는 현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적용 시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비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향후 개방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재정기반 확대가 요구됨.
- 국제적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의 평균은 1985년, 48.5% → 1990년, 41.3% → 1995년, 36.7% → 2000년, 32.6% → 2005년, 28.2% → 2010년, 25.6%로 하락
-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궁극적으로 법인세제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 법인세율은 과거부터 점차로 인하되었던 반면, 최저한세율은 오히려 증가해 실제 법인세 부담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표 13]과 같이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과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저한세율이 증가
 -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
-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우리나라가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

[표 13] 최저한세율 변화

연도		1999	2004			2005	2009
일반기업	과세표준	15%	15%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15%	13%
				과세표준 1천억 원 이하		13%	10%
중소기업	과세표준	12%	10%	과세표준		10%	7%
연도				2010	2011	2013	2014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14%	14%	16%	17%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	10%	10%
중소기업	과세표준			7%	7%	7%	7%
사회적기업	과세표준				7%	7%	

주 1) 시행연도 기준

2)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9% 적용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권오박·고재모(2009.01), “기업의 경영성과와 광고비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1 No.1, pp.141-165.
- 김동훈(2014.02),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및 재무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회계연구 Vol.53 No.-, pp.349-371.
- 김선구·연룡모(2007.11),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친 다기간 효과 분석”, 회계연구 Vol.12 No.3, pp.1-31.
- 김유찬·김진수(2003.12),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의 인하는 필요한가?”,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pp.85-107.
- 김정은·임종욱·전성일(2011),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경영교육연구 Vol. 67 No.-, pp.71~92.
- 김학수(2009.11),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 시사점, 연구보고서 09-14, 한국경제연구원.
- 노용진·채창균(2009),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2호, pp.67-93.
- 박윤옥·양동우(2011), “연구개발비 및 기타 무형자산 관련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4권 제1호, pp.27-46.
- 박진백(2008.02), 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 성효용(2008.12), “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Vol.11 No.2, pp.43-56.
- 송동섭·심재우(2012.08),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와의 관련성 연구”, 상업교육연구 Vol.26 No.3, pp.271-292.
- 신현대·이정기·유성용(2006), “기업투자활성화에 법인세율 및 타인자본비용이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10, pp.359-378.
- 안중범(2009.04),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법인세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09-04, 한국경제연구원.
- 양지청(2014), “동태적 Panel 분석을 통한 R&D 투자의 지역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Vol.18 No.3, pp.175-201.
- 오수정(2013.05), 법인세율 및 개방도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 윤병섭·허호영(2011), “연구개발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0년 한국 R&D Scoreboard”, 전문경영인연구 제14권 제2호, pp.109-131.

이석호(2007.02), 법인세와 경제성장 -평균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이영(2006),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 pp.1-22.

이태정(2007.02),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Vol.17 No.-, pp.291-307.

전봉걸·송호신(2012.6),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pp.141-166.

전성일·김정은(2009), “법인세율 인하가 R&D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2009권 제0호, pp.1-16.

조경엽·오테연(2012.11),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연구보고서 12-07, 한국경제연구원.

하동현·임샘이(2013.04),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회계연구 Vol.81 No.-, pp.241-268.

[해외문헌]

Altschuler, R.-H. Grubert-T.S. Newlon (2000), Has U.S. Investment Abroad Become More Sensitive to Tax Rates, Working Paper.

Brill, A. (2007.07), Revenue-Maximizing Corporate Income Taxes, Working Paper.

Clausing, K.A. (2007.04), “Corporate tax revenu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4(2), pp.115-133.

Devereux, M.P., R. Griffith, A. Klemm (2004), Why has the UK Corporation tax raised so much revenue?, Working Paper.

Foster R.N. (2003), “Corporate Performance and Technological Change Through Investor's eyes”,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46(6), pp.36.

Inci A.C.·이봉수·서정원 (2009), “Capital Investment and Earnings- International Evidence”, An International Review 17(5), pp.526-545.

Kopcke, R.W.·M.M. Howrey (1994), “A Panel Study of Investment- Sales, Cash Flow, the Cost of Capital, and Leverage”,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an/Feb94, pp.9.

Lundgren. T (2005.08), “Assessing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Swedish Timberland-A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pproach”, Land Economics 81(3), pp.353.

Tubbs 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Company Performance”,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50(6), pp.23-30.